

2022년도 1학기

# 공감프레젠테이션

다빈치교양대학 김보현

4주차



# 은유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내용 구성

- “A(원개념)는 B(매개개념)이다.”

☞ *사랑은 미로/유리/커피다.*

-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 A를 구체적인 개념 B를 통해 쉽고 직관적으로 전달

- 접근이 쉬운 개념 및 이야기를 통해 추상적이고 어려운 주제에 대한 접근이  
인지적으로 용이
- 신선함, 재미, 감동, 흥미, 이해, 공감
- 전반적인 내용, 중심 메시지와 긴밀한 연결

- 중심 메시지(주제)에 대한 은유를 정하고 은유적 표현을 내용의 전체 및 부분에서 일관성 있게 활용
  - 단순한 1:1 개념 대응 x
  - 중심 메시지와 은유 대상의 구조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대응
  - 주제를 설명하는 쉬운 '이야기' 구조

- 인상적인 문구 사용하기



# 은유를 활용한 내용 구성 방법

## ■ 인

알프레드 디 수자의 시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삶’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진정한 삶이 곧 시작되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내 앞에는 언제나 온갖 장애물과 먼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 아직 끝내지 못한 일들과 바쳐야 할 시간들과 갚아야 할 빚이 있었다. 그런 다음에야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나는 믿었다. 마침내 나는 깨닫게 되었다. 그런 장애물들이 바로 내 삶이었다는 것을.’

어른이 된다는 것은 아마 이러한 삶의 과정을 깨닫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는 ‘끝’을 의미하는 자리가 아닐 겁니다.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아마 저와 같이,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중앙대학교에서의 대학생활은, 그것이 달콤했든 씁쓸했든 상관없이,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들을 밑거름 삼아 우리는 또다른 삶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 강렬한 이미지 제시하기

-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 다양한 감각 자극 활용



■  
- 人

뉴스룸

CAU

jtbc

jtbc

뉴스룸

## ■ 고사성어 활용하기

옛 중국 고사성어에는 ‘염일방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송나라 때의 철학자 사마광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에서부터 전해진 것인데요. 그 고사성어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숨바꼭질을 하던 중, 어린아이 한 명이 큰 물독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 사마광은 옆에 있던 돌을 들어 물독을 깨뜨리고 아이를 구했습니다. 고귀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물독쯤은 깨 버려도 된다는 생각을 한 것이지요.

## ■ 고사성어 활용하기

염일방일의 뜻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잃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국가 안보와 경제, 즉 생명과 돈을 말입니다. 둘 다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튼튼한 국가 안보를 얻는 동시에 중국의 막대한 경제력을 포기해야 하는지, 안정된 경제 기반을 위해 휴전국가라는 사실을 조금 잊어야 하는지는 차차 두고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포기해야 할 줄 아는 것, 염일방일의 고사를 생각하며 말입니다.

- 초반부에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은유 생성(필수 X)

- 지나치게 평범하거나 지나치게 개성적인 것 X

- “내 인생은 꿈/여행/마라톤/시트콤”

- “내 인생은 토끼와 고양이 사이의 구구곤”

- ☞ 신선하고 개성적이되, 공감할 수 있는 은유

- ☞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개인적인 에피소드

- 본론에서 은유에 담긴 두 개념의 속성을 잘 연결하여 표현
  - 전체적인 방향성과 구조를 잡는 데 지속적 역할
  - 두 개념의 속성을 이용하여 세부 내용 구성
  - 은유의 두 개념의 유사한 속성을 구조적으로 연결하여 제시

- 결론에서 은유를 사용한 수미상관의 통일성을 제시
  - 주제 강조, 인상적인 이미지 각인
  - 구조적 긴밀성, 안정성
  - 똑같은 형식의 반복 X
  - 더욱 강렬하고 긴밀한 메시지로 재구조화



## 활동1

# 은유를 활용한 연설문 분석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 책은 발행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청소년 권장 도서로 크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도록 시원하게 뚫린 대로가 아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막다른 길에서 좌절하기도 하는 미로와 같다.” 이 책에 적혀 있는 문장입니다.

미로! 어지럽게 갈라져서,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빠져 나가기 어려운 길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책에 쓰여진 대로 우리의 인생은 미로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열심히 고민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목표에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목표가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로에서 효과적으로 탈출하기 위해 우리는 이전에 지나왔던 막다른 골목을 다시 마주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 활동1

# 은유를 활용한 연설문 분석

“세월호 인양 현장에 유해 전문가 단 한 명도 없었다”

3월 30일, 한 인터넷 기사 제목입니다.

지난 29일 해양수산부와 학계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유해 수습 전문가와 협의를 하지 않았고, 현장에 유해 발굴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월호 인양에서 중요한 목적이 미수습자 수색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해수부의 이 같은 방침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8일 해수부는 동물의 뼈를 사람의 유골로 착각해,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유가족들에게 허탈함과 분노를 느끼게 했습니다.

3년 전 세월호 사건 부실 대처에 이어, 현재 유해발굴마저 부실 대처까지.

국민들이 인생이라는 미로에서 목표를 찾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정부의 제자리걸음 때문입니다.

주저 앉아 있는 국민들이 다시금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희생자들의 유골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활동1

# 은유를 활용한 연설문 분석

### 본론 구조

미로의 특징	정부의 세월호 인양 작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구를 알 수 없다.</li> <li>2. 출구를 찾기 위해서는 과거에 지나 온 길을 기억해야 한다.</li> <li>3. 출구를 찾기 위해서는 앞쪽에 있는, 현혹하는 잘못된 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재의 세월호 인양의 모습은 진실이라는 출구를 찾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li> <li>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사건 초기 무대책 대응, 적극적 대응 부조 등의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li> <li>3. 진실의 출구를 찾기 위해서는 정의와 진실을 가로막는 잘못된 길을 뿌리치는 용기를 가지고 현명하게 출구를 찾아 나가야 한다.</li> </ol>

### 마무리 구조

용기 있고 현명하게 진실의 미로를 통과해서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에게 국가의 위상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 스피치 원고 개요 작성

## ■ 3분 스피치(연설) 개요 작성

- 3분 스피치 주제 선정: 청중에게 '행위 촉구'하는 “설득 스피치”
- 개요: 도입, 본론, 마무리의 기본적인 토대 구축(논리적 흐름, 은유 구조 등)

\* 최종본 X, 스피치 실습 전 최종 원고 작성 시 수정 가능

공감프레젠테이션

감사합니다